

官吏와 政治家로서의 李滉**

우쉬코프 (A.M. Oushikov)*

자세한 내용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乙巳士禍(1545) 후에 李滉(退溪, 1501~1570)은 서울에서의 관직을 버리고 고향 경상도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그 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李珥(栗谷, 1536~1584)와 徐敬德(花潭, 1489~1546)과 더불어 그는 한국의 신유학 정통사상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 학자였다. 이황은 신유학의 최초의 전문가로서, 한국주자학(소위 理學 또는 性理學)의 영남학파의 창시자로서, 일본주자학의 창시자 후지하라 세이카(1561~1615)와 또다른 지도자 야마사키 안사이(1618~1682)에게 결정적 영향을 끼친 사상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이황이 공자를 首都의 성균관 대성전에 배정된 18명의 가장 유명한 한국의 유학자 중의 一人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 수 있으며, 오랫동안 한국의 유학이 공자가 제시한 약간의 교리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는 주희(1130~1200)의 맹목적인 추종자가 아니라 주희의 가르침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의심이 제기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철저한 학자였다.

필자는 이황의 철학 학설을 심사숙고하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필자는 “객관적 이상주의자” 또는 심지어 “반동적 철학자”의 평범한 정의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비록 필자는 다른 소련과 오국 학자들 앞에서

* 모스크바공대 교수

** 퇴계학 연구원, 「퇴계학보」 제68호(1990) 게재논문.

(이 논문은 제12회 퇴계학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것임)

이 점을 죄스럽게 여기고 있지만). ‘理’와 ‘氣’와 같은 중요한 교리를 포함한 유교의 모든 교의는 아닐지라도 많은 교리의 새로운 해설이 오늘날 나타나 보이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도 이 점은 오늘날 부정확하다. 그들은 소련의 학자 A.I. 코브체프에 의한 중대한 갈림길이 되는 고도로 구체화된 작업 때문인데, 서구적 철학사상과 전통적 동양(중국, 한국, 일본)의 철학사상 간에 점점 늘어나는 간격에 대한 그의 생각은 우리들에 의하여 완전히 공유되었는 바, 그 간격은 “낮선 개념적 계획의 건강부회적인 틀 속에 있는 살아 있는 역사 철학적 본론의 죽음”¹⁾으로 가득차 있다.

이황은 역사상 한국 유학자의 규범으로서, 제자와 추종자들의 무리를 지닌 교육자로서, 관직을 버렸으나 대단히 심원하고도 매력있는 유교적 전통을 실현하는—즉 중심적 사상에는 반대하고서도 정권의 가능한 개혁주의자의 향상에는 신념을 잃지 않고 있는—公人으로서 역사에 남아 있다. 그는 정통적 주자학자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한 한계를 느꼈으며 그 한계 이상으로 위대한 이웃 나라에 대한 존경심은 한국을 ‘小中葉’로 만들고 싶은 욕망으로 자라나게 되었으며, 그의 추종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에 굽히는 바가 되었다.

아래에서 우리는 이황의 공적인 정치적인 활동에 관한 두 가지 주제만을 다룰 것이다. 즉 향약의 발전에 기여한 점과 서원을 조직한 업적이다. 중국 최초의 향약은 11세기 후반 宋代에 呂氏 삼형제에 의하여 준비되고 완성되었는데, 아마도 송대 유교의 창시자 程頤(1033~1107)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가장 완전한 원전은 왕양명(1472~1529)의 향약으로 믿어지는데 그것은 여씨 형제로부터 직접 차용한 것과 明王朝의 창시자 朱元璋(1328~1398)의 도덕규범을 보여준다.

우리는 한국역사에서 이 향약의 중국판이 유명한 학자 趙光祖(1482

1) A.I. 코브체프, 《王陽명의 가르침과 中國古典哲學》(모스크바, 나우카 출판사, 1983) P. 112

~1519)에 의하여 中宗(1506~1544)에게 제출되었으나 아무런 소득도 없었음을 알고 있다. 경상도의 金安國이라는 사람이 1517년에 이러한 향약을 시도하여 시행한 최초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다. 이러한 종류의 전형적인 조직은 이황의 유명한 동시대인으로 주자학에 대하여 대립된 견해를 지녔던 학자 이이에 의하여 해주에서 설치되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향약’의 규정하에 한국의 농촌사회의 생활을 전통적으로 통치하는 규칙들이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은 상호상담, 과오의 상호시정, 우애, 필요시의 상호부조 등이다.²⁾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원칙 이외에 그 규칙은 임원선출(鄉約長, 副約長, 書記 等), 정기총회, 모임잔치(음주포함), 궁술대회(엄격한 의식하에), 가족 상호간에 상부상조에 관한 의식의 준비와 시행, 범법자에 대한 제재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 약정관계는 전통이 되었고 향민들의 도덕적 행위를 통제했던 최후의 원전은 한국에서 1903년에 출판되었다. 금세기에 가까이 올수록 지역 사회 내의 절차의 재정적 특성을 주목할 이유를 더 많이 보게 되고 ‘향약’은 민중들로 하여금 전제국가의 통제에 굴복하게 만드는 상부상조의 민중적 전통의 유교적 변형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황이 자기 나름대로의 향약을 발전시켜 부모에 불효하고, 가정을 불화케 하며, 친구간의 신의를 저버리고, 관혼상제의 규범을 어긴 자들을 벌하는 조문을 삽입케한 것을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는 官에 대항하여 사회적 관습과 규범을 위반한 자, 관행을 무시하고 분열정책을 수행한 자, 개인적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관에 반항하여 논박하거나 비판한 자, 학자를 능멸해서 대우하고 저급한 행위를 한 자를 벌하는 조문 속에 특별한 정치적 중요성을 부여했다. 상호부조에 대한 정상적 조문 이외에도 이황의 향약에는 기존의 또는 기록된 규범들을 가 능하다면 개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포함되어 있어서 또한 중요하다.

중국의 왕양명과 한국의 이황이 작성한 향약을 비교해 봄으로써 전자

2)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모슬렘 사회의 진정한 이상적 생활을 지배하는 “슈라”의 규칙과 명백한 유사점이 있다.

가 후자에게 끼친 영향(적어도 연대적으로 그것은 배제될 수 없다)과 후자가 한국 향촌의 행정적 관계에 관한 정치적 이해에 바친 공헌, 즉 지역사회 자치정부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더욱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철학자로서 이황은 그를 주희와 程氏 형제들과 비교하지 않고는 이해될 수 없는 까닭인데, 마치 저명한 한국 철학자 서경덕이 탁월한 중국의 학자 張載(1020~1077)와 비교함으로써만 이해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유학자는 은둔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옳은 말이다. 그리고 이황은 비록 귀양살이를 하면서도 정치활동을 할 운명이었다. 그는 순수한 학문에만 그 자신을 국한시킬 수 없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바와 같이 향촌의 향약 현장의 초고를 작성하여 왕에게 상소를 올렸고 지방의 지적 생활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후자에 관하여 그는 지방에 유교 서원을 설립하였는 바, 노어로 번역하면 대체로 ‘명예의 전당’이란 뜻이다. 그것들은 지방의 탁월한 유학자들을 기념하는 기념관과 집회소, 유학논쟁의 토론장으로서 그들 나름대로의 도서관과 숙소가 있다. 교육의 중심지로서 그 서원들은 최상의 교사들을 끌어 모을 수 있었고 지방의 향교와 경쟁을 하였는 바, 향교는 국가의 뒷받침을 받는 학문의 중심지로서 유교의 정치적 사회적 철학적 사상의 서로 다른 유파와 학파의 주창자들을 끌어 모았다.

유교의 서원과 중국에서의 비슷한 유명한 제도, 즉 둔린 또는 과이인 아카데미를 비교하는 것이 주요한 것처럼 보인다. 이 비교는 아마도 중국과 한국의 지적 생활과 정치적 문화를 더 잘 이해하게 하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최초로 알려진 “서원”은 이황의 친구인 지방수령인 周世鵬에 의하여 1541년 경상도의, 전통적으로 한국 최초의 유학자로 숭앙되는 安珦(1243~1306)의 가문의 사당을 근거로 하여 설립되었다. 1550년 이황이 지방관장이 되었을 때, 明宗(1546~67)이 백운서원에 토지와 노비를 하사하고 세금을 면제하고 그 서원에 대한 그의 보호조치를 베풀

었다. 이황은 그 곳에서 가르쳤으며 그의 오랜 귀양살이 중에 그의 저서를 집필하였다.

16세기 말에서 19세기 말까지 서원의 숫자는 여러 배로 증가되었고, 그들은 대지주가 되었고 부를 축적하였으며, 때로는 당쟁의 음모를 일삼게 되었다. 그러나 공교육으로서의 주자학의 편재함을 고려한다면 학문적인 토론은 점점 이론적이 되었다. 어떤 다른 사회적 정치적 기구나 마찬가지로 서원들도 그들의 내적 논리에 따라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시키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과 봉건적 봉당의 당파적 이익을 위하여 작용을 했다. 그러나 이황은 그가 착상해 낸 기구가 그러한 운명을 당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었다. 그는 지식과 교육의 중심지를 마련했었고 국가의 보호를 위협스럽다기 보다는 위신이 서는 일이라고 여겼다. 물론 우리의 상당히 제한된 가정들과 결론들은 형이상학과는 달리, 동양의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을 서구의 정치학의 견지에서 해설에는 훨씬 덜 맞는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유 철 준 譯)